

미국 캘리포니아주 訪問 旅跡

강종일

필자가 임상수의사의 길로 들어선 뒤 늘 고민해 왔던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수의사의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해서 현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지난 10월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LA공항에 도착하기까지 9시간여 비행하는 동안 개업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을 더듬으며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다 지우고 또다시 그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오랜만에 필자만의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생시절 80년대 중반에 발행되었던 '재미 한인 수의사 회보'지에서 읽었던 동물병원 경영에 관한 정보는 필자가 개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졸업 후 개업에 참고할 만한 모델병원을 찾고자 서울과 지방 도시의 많은 동물병원을 다녀봤지만 수의사인 자신을 초라하고 실망하게 만들 뿐 정말 '재미 한인 수의사 회보'지에서 읽었던 내용의 동물병원에 가까운 병원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헤메며 방황하면서 필자는 '이런 동물병원은 만들지 말자. 그리고 경영학과 재학시 경제학 첫 강의 때 배웠던 'Innovation을 실천하자'라고 자신과의 약속을 더욱 굳게 하였다. 어렵게 시작한 개업은 필자가 알고 있는 병산의 일각인 지식과 진단장비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성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고 숙련된 진료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Internship'의 교육제도가 아쉬웠던 것

이다. '百問이 不如一見'이라 했던가? 특히 임상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잘 씌어진 책을 읽고 또 읽어봐도 상상이 안될 때가 어찌 한 두 Case였던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였던가? 좀 더 가까이서 미국 수의 임상수준을 체험해보는 것이 해답이 될 것 같은 기대가 필자를 또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했던 것이다.

간단한 입국절차를 마치고 출구로 나가니 이상우 수의사가 필자를 반겨주었다. 필자는 이번이 3번째 미국방문이지만 항상 낯설은 새로운 분위기에 웬지 움추려 들려고 한다. 그러나 필자옆에는 믿음직한 이상우 수의사가 있지 않는가! '그래 가슴을 크게 펴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행동하자'라고 다짐하며, 코리아 타운에서 설렁탕으로 요기를 한 뒤, 이상우씨 집이 있는 Fresno로 향했다. 사막에 형성된 LA지역의 도시들, 지금은 심한 건기라서 인공수로가 미치지 않는 곳엔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는 삭막한 도시들을 자꾸 자꾸 뒤로한 채 우리는 고속도로를 질주하였다.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지는 광경은 비가 오지 않는 탓에 초목은 노랗게 메말라 있었으며 곳곳이 산불로 인해 시커먼 민둥산으로 변해 있었고, 스포링쿨러가 물을 뿜어대는 지역에서는 각종 채소와 포도, 오렌지 나무가 수확기에 있었다. 또한 흰 눈송이처럼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수확기를 앞둔 목화밭과 기계 혼자서 자동으로 석유를 퍼내는 유전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4시간여 동안 새롭게 펼쳐지는 광경들을 뒤로 하다보니 어느덧 목적지인 Fresno에 도착하여 이상우씨 부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다음날, 재미 한인수의

사로서 안과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유만중원장님 병원을 방문하여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병원 내부 시설과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Phaco를 이용한 백내장수술 시범지도를 받고 시차적응을 못하여 그만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또 Fresno에 있는 전호준원장님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경영의 전반에 대한 조언과 몇가지 수술을 지켜 보았고, 더 알려 줄 것이 없을까 하시며 뭔가 가르쳐 주시려는 성의가 너무도 고마웠다. 그후 유만중원장님께서 전호준원장님 내외와 이상우씨 내외 그리고, 필자를 유원장님 댁으로 초청하여 잘 차려진 부페식 저녁식사로 융숭한 대접까지 해주셨다. Menifee에 있는 이병희원장님 병원을 방문하였다. 4년전부터 경영해 오시던 병원을 최초 2배의 규모로 확장시켜 지금은 거의 내부시설이 끝난 완성단계에 있었는데 확 트인 내부설계가 깨끗하고 시원시원했다. 다음 날까지 근무해 보면서 느낀 것은 다져진 지식위에 친절하고 성실한 마음자세로 한 Case마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다운 임상수의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이원장님과 함께 Fountain valley에 있는 Dr. Rooks 병원인 'All Care Animal Referral Center'에서 재미 한인수의사를 대상으로 'Toxicology'에 대한 강의가 있다가에 그 병원에 갔다. 그곳엔 장철봉원장님, 최재현원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재미 한인수의사들이 와 계시어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2시간여 진행된 강의를 들은 뒤 병원시설을 구석구석 구경하고 이원장님 댁으로 돌아왔다(그후 필자가 이 병원에서 며칠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바와 이 병원과 원장 Dr. Rooks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지 97년 1월호 페이지 44을 참고바란다). 이원장님 댁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신선한 공기, 주거하기에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까지 제공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다. Upland에서 미네소타주 수의과대학의 병원구조 축소판으로 설계하였다는 하병래원장님 병원을 방문하여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하원장님의 병원은 미국 일반동물병원 수준 이상의 진단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자신있는 진료와 재미 한인수의사들이 인정하는 실력가이신 하원장님께서서는 많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개업한 지 얼마 안되어 동분서주하는 Anaheim의 최기준 졸업동기도 뛰어난 순발력으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흐뭇했고, La Puente에 있는 선배 이원창원장님께서도 틈틈히 Golf와 바둑으로 여가를 즐기시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동물병원에만 얽매어 사는 대부분의 한국 수의사들과 비교할 때 꽤 부러웠다. 미국에서 동물병원 체인점 중 하나인 Miller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박찬식 수의사도 만나 한국 임상수의의 당면한 공통관심사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새로 형성된 도시 Oceanside에서 개업을 한 강동원 원장님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강동원 원장님의 격려말씀 중 "미국의 경우 미국 선배수의사들이 지난 수십여년 동안에 걸쳐 애완동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와 사양관리에 대한 철저한 축주교육과 사회분위기 조성등 이미 다져진 바탕위에 지금의 임상수의사들은 수의사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역할을 해 내면 되고, 아니면 복잡한 Case는 임상실험실이나 전문의에게 보내면 되지만, 한국 임상 수의사들은 축주교육과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기초 임상분야에서부터 수준높은 임상분야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개념에서 가족 일원의 개념으로 바뀐지 그리 길지 않은 애견문화 속에서 애견에 대한 기초상식의 부재와 부정적 이미지의 벽이 아직도 얼마나 두터운가? 이 두터운 벽을 허물고 축주를 계몽하고 우리 수의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바로 우리 수의사들 자신이 해야 한다. 급속히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상에서 우리 수의사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앞선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NBE(National Board Exam.) 준비를 위한 모임인 Study Group에 참석해 왔다. 그 모임의 참석자 중에 본인은 이미 NBE에 합격을 했지만 NBE를 준비하는 후배 수의사들을 격려해주고 지난 시험내용을 다시 풀어 보며 다가올 시험경향을 함께 예측 분석해주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Study Group에 함께 참여하시는 인정많은 선배수의사님들이 계셨다. 이 모임 참석자들은 일주일동안 각자가 맡아 연구해온 분야를 서로 토론하면서 확실한 실력을 연마해가는 과정이 무척 화기에אה하였고 설혹 잘못된 답을 말할 때는 정말 예리한 반론과 즉석에서

관련된 서적을 펴서 확인하는 등 철저히 공부하는 모습이 감탄스러웠다. NBE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과 질의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미국 수의사들이 사회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이 Study Group을 통해서 이제야 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철저히 공부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정말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U.C. Davis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구내 서점에서 수의학 관련서적을 사고 나와 휴게실에서 이 대학에서 미생물 박사과정을 마치고 3년제 Post Doc.과정에 있는 조기호 수의사를 우연히 만나 이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4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수의과대학은 기초학문과정은 의대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데 실력면에서 수의대생들이 의대생보다 월등하다고 하며 시설이나 학생수준에서 Cornell 수의과대학을 앞설거라는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도 제대로 갖춰진 수의과대학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조기호씨와 작별을 하였다. 필자는 짧은 방문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많은 재미 한인수의사와 미국 수의사를 만났고, 그 분들이 경영하시는 동물병원도 여러곳을 방문하였다. 만나뵈은 분들마다 출신학교와

출신지역을 떠나 우리는 수의사라는 직업공동체적인 일체감으로 모두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선배 수의사로서 필자에게 해주시는 수의사의 당면한 현실문제, 그리고 미래의 수의학에 발전전망과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조언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다. 필자와 끝까지 동행해준 이상우 수의사와 필자와 만난 재미 한인수의사님들께서 베풀어준 친절과 후의를 지면을 빌어 다시 감사드리고자 한다. 필자가 출국하는 날 그즈음에 보기도문 비가 새벽부터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필자가 떠나가는 것이 아쉽기라도 하는 듯이...

‘그래! 돌아가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을 하자.’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몇년 아니, 몇십년 후에 임상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임상수의사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선도해 나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는 다른 수의사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자. 우리나라 수의학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뿌듯하고 벅찬 가슴을 안고 미국에서의 일정을 다시 회상하다 보니 어느덧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밖에는 항상 필자의 뒷바라지에 고생이 많은 사랑하는 아내와 한술, 한빛이 빠듯한 여정에 지친 필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BST에 대하여

부스틴-에스 투여시 체세포수가 증가합니까?

부스틴-에스 투여에 의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의성이 없습니다. 원래 체세포수는 젖소의 산차가 높아질수록 비유초기와 말기에는 높아지고 아침보다는 저녁에 착유한 젖소에 처음 것보다는 끝젖소착유시, 급작스런 사료 교체 등에서 체세포수가 증가합니다. 또한 중요한 Key point는 젖소 유방염일 때도 체세포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부스틴-에스 투여시 유방염에 걸린 젖소는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무리한 끝젖착유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부스틴-에스와 유방염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유전적으로 고능력우인 경우 유방염 발생이 저능력우인 경우보다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계신 점입니다. 목장에서 고능력우에 대한 관리처럼 부스틴-에스 투여우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 착유시의 과착유나 라이너 슬립 등에 의한 부적절한 착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착유전후로 유두침지를 철저히 해주시고 위생적인 착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유기에는 유방염 치료 및 예방의 적기이므로 잘 활용하셔야 하고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방염을 예방하신다면 부스틴-에스를 투여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